

일찍이 이런 인간은 없었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일찍이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최근 다양한 패러디물(parody物)을 양산하며 유행어로 자리 잡은 영화 대사다. 극우 세력의 잇단 망언(妄言)과 망동(妄動)을 보면서, 여기에 또 다른 패러디 하나를 추가한다. “일찍이 이런 꼴지각한 인간은 없었다. 이자들은 사람이냐 괴물인가.”

살얼결이다. 100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마땅한 천이 없어 누군가는 치마를 찢어 직접 그리기도 했던 태극기. 그날의 태극기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 그리고 1945년 8월15일, 사람들은 또다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주체할 수 없는 광복의 기쁨을 누렸다. 그날의 태극기에는 반발한 웃음꽃처럼 나라를 찾

은 벽찬 감격이 일렁였다. 세월이 흘러 다시 1980년 5월, 광주 상무관에는 계엄군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시신이 안치됐다. 그때 희생자들의 시신을 담은 수많은 관역시 태극기로 덮였다. 그날의 태극기에는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 쓰러진 처절한 슬픔이 어렸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요 애국심의 상징이기도 하다. 역사의 현장에는 늘 태극기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휘날리는 경의(敬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전유물이 되고나서부터 태극기의 위상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심한 혼란을 느낀다. 저들의 태극기와 우리의 태극기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5·18 망언은 계속되고

‘태극기 부대’란 말에서는 어쩐지 ‘박수 부대’의 냄새가 난다. 물론 개중에는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어떤 소신을 가진 이도 간혹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 동원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우리의 이런 느낌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저들의

의 황당한 사고 체계 때문일 것이다.)

“박수 부대”(claque)는 정치 집회나 극장에서 주최 측이 동원한 바람잡이들이다. 청중의 반응을 주최 측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돈이나 티켓으로 매수한 사람들이다.

박수 부대의 기원은 멀리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로 황제는 대중 앞에 나설 때 늘 박수 부대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16세기 프랑스의 시인 장 도라는 자가 쓴 연극을 상연할 때 무료 초대권을 배부해 박수를 유도해 냈다. 1820년 프랑스의 사업가 올리비에 소통은 파리에 박수 부대 공급을 위한 사무실을 냈는데, 박수 부대를 처음 제도화한 사람이라 하겠다.

어쩐지 박수 부대 느낌이 드는 ‘태극기 부대’의 총대장은 누구인가. 아마도 끊임 없이 5·18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가 아닌가 싶다. 김대중을 ‘빨갱이’로 전두환은 ‘영웅’으로 간주하는 극우 논객. 그는 본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갑자기 공금해진다.(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세삼 공금증이 인 것은 아무래도 요즘 5·18 망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레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며

찾아봤더니, 뜻밖에 김대중(DJ)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한때는 월간 ‘말’지에 평론을 쓴 진보적 군사 평론가이자 촉망받는 시스템 분석가였다니 놀랍다.

보도에 의하면 1942년생인 그는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육사(22기)를 졸업하고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대령으로 예편했다. 백마부대(9사단) 포병연대에 배속되어 베트남전에 참전(1967~1971년)하기도 했는데, 전두환은 그 시기 월남에 파병된 백마부대 29연대장이었다.

지 씨는 90년대 후반 당시 동교동계 좌장이었던 권노갑 국회의원의 부총재가 접촉해 군사와 대북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97년 대선 때만 해도 DJ의 대북관과 통일관에 대해 ‘균형 있는 구도를 갖춰야’고 평가했던 그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DJ는 빨갱이’와 같은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며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 씨는 어쩌하여 DJ에게 등을 돌리고 반대 세력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김전 대통령 측에서 공천이나 혹은 어떤 자리를 주지 않자 적으로 돌아섰을 것으로 본다. 특히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최경

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으로 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 씨의 변심 이유를 설명한다.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청와대로 ‘연구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보냈던 지 씨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누가 태극기를 모독하는가

아무튼 지 씨는 이후 끊임없이 열도당 토요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거짓 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선동적 이슈를 만들면 거리의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그는 이 같은 나치 선전상 괴벨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일까. 하여튼 그에게서 비롯된 가짜 뉴스는 태극기 부대에 이르러 거의 ‘신앙’이 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비이성적 왜곡 담론이 극우파 일부에 머물지 않고, 광주정쟁을 겪지 않은 일반 대중의 의식 속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5·18 유공자들을 ‘괴물’이라 했던 한 의원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어제 본보에 게재한 기고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왜곡 담론의 이러한 확산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대중의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에 기댄 반복적인 노획 효과 덕분이다.” 매우 공감 가는 얘기이지만 한편 두렵고 심히 경계해야 할 일 아닌가.

다시 태극기 얘기로 돌아와서, 나는 ‘태극기 부대’나 ‘태극기 세력’이니 하는 말도 영 마뜩지 않다. 태극기 부대란 말을 외국인이 처음 듣더라도 할라치면, 이자들이 무슨 대단한 애국 세력이나 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저들의 모임에 굳이 애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넣으려면 차라리 ‘태극기 펄펄 부대’ 혹은 ‘태극기 모독 세력’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일찍이 철학자 김용석 교수가 지적한 바,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불안정 불감증’이요 ‘피로 회복제가 아니라 ‘피로 해소제’라 해야 맞는 말일 듯.) 지금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리고 있는 ‘태극기-우리 역사의 물결’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보고 와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정부 “제재 틀 속 교류 추진 변함없다”

“트럼프 대통령, 향후 만남 고대” 발언에 기대

하노이 선언 불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답판’이 28일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북미간 협상이 잘 풀리면 합의문에 대해 북제재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제재에 묶여있는 남북 경협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 정도는 상응 조치로 내주는 것이냐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사실 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방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

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북미 양측 모두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는 제재완화 문제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과 북은 최근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고 연결 사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당시 남북간 자료 교환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바가며 구체적인 현 대화 공사 계획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개방 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취해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남북교류사업은 제자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 정원에서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리결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가속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며, 향후 만남을 고

대한다’고 밝히고 확대회담에 배석했다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몇 주 내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한동안 남북 간 경협에 큰 진전은 없었지만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일정 예정대로

오늘 국가주석 방문 등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 베트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불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려 55년 만에 이뤄진 북한 최고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주석공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근처에 있는 전쟁영웅·열사 기념비 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녁에는 중 주석이 마련하고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연합뉴스

<h2 style="margin: 0;">임야</h2> <p style="margin: 0;">단독심/지분물건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p>	<h2 style="margin: 0;">투자자모집</h2> <p style="margin: 0;">엔피엘/급매물등 모든부동산 (주)오천/최신규.010-3605-5000</p>
--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 고시혈 건강가능 식품입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식후 2개월식~ 하루 2개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2박스 구매하신 분께 안달분 더 드립니다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HSA
심약번호: 21719239

010-3598-7080

NAVER 유안하이오 백세생활건강 - 검색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명의로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월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의로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의로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